

마야를 탓하지 말고 강력한 창조자 마스터가 되어라 .

오늘 밥다다는 이 집회 전체에서 특히 지식과 요가의 화신이 된 후에 창조자 마스터의 단계에 변함없이 안정해 있는 영혼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은 스스로 제각기 지식이 많은 요기라 하지만 아버지처럼 지식이 많은 데서, 그리고 아버지와 대등한 요기 영혼인 데서 너희에게는 등수가 있다. 아버지와 대등하다는 것은 창조자 마스터의 위치에 변함없이 안정해 머문다는 뜻이다. 창조자 마스터의 자리에 쉽게 안정하는 강력한 영혼들 앞에서는 피조물 전체가 하인이 되어 봉사해 협조한다. 창조자 마스터는 그의 순수한 생각에 지시함으로써 그가 어떤 유형의 분위기를 원하든 그것을 1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순수한 생각들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그는 퍼뜨리고자 하는 어떤 유형의 파동도 퍼뜨릴 수 있다. 그가 어떤 힘을 불러내든 그 힘은 협조한다. 어느 특정 영혼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므로 그런 영혼은 모든 성취를 주는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서 그 영혼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바바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나 그렇게 강력한 창조자 마스터가 되어 너희의 자리에 한결같이 쉽게 앉아있는지 보았다. 바바가 뭘 보았겠느냐? 모든 이가 어쨌든 다 등수대로다. 하지만 바바가 여전히 본 것은 창조자 마스터라고 스스로 칭하는 그런 영혼들이 자기들 생각의 힘으로 만든 단 하나의 낭비적인 생각에도 혼돈 되어 겁을 먹는 모습이었다. 의식의 압력이 낮아지는 탓에 열성과 열의의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 낙담해서 식은땀이 흐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는 뭘 해야 할지 그걸 또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하며 괴로워진다. 그것은 단 1초의 실수다. 너희는 제자리인 창조자 마스터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위치가 달라지거나 망각이 있을 때는 마야의 군대가 바로 1초 이내에 너희에게 맞서려고 쳐들어온다. 누가 마야를 부르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제 위치에서 내려온다. 너희는 제 위치의 자리를 내놓고, 빈자리를 본 마야는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마야는 “나를 비난할 일이 아니야! 네가 불렀으니 내가 왔지!” 라 한다. 이해하느냐? 앗차. 오늘은 만남의 날이다. 너희가 하는 또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바바가 다른 때 얘기해주겠다.

창조자 마스터 모두에게, 자기의 자리에 쉽게 앉는 자들에게, 아이이며 주인이라는 의식의 화신인 자들에게, 한결같이 지식으로 충만하며 아버지와 대등한 자들에게, 그렇게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쿠마리들을 만나심 .

쿠마리인 너희들은 결정했느냐? 너희가 쿠마리로서 살 때가 곧 결정할 때다. 너희는 결정해야 할 때 아버지에게 왔을 만큼 복이 많은 행운아들이다. 너희의 삶이 약간이라도 앞쪽으로 움직였다면 너희는 새장에 갇힌 앵무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새장에 갇힌 앵무새냐, 자유로운 새냐? 쿠마리는 자유로운 새다. 쿠마리들은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은행 잔고를 쌓아두기를 원하느냐? 세속의 아버지 술하에 머문다면 너희가 차파티 두어 장을 먹을 수 있을 테지만 반면에 만일 너희가 영적인 가족과 함께 머문다면 아무 부족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다니겠느냐? 센터에서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냐? 애착을 가졌다는 말을 들어도 너희는 슬픔의 파도를 경험한다. 어떤 경우든 쿠마리들은 집에서 살지 않는다. 너희가 아버지의 가슴의 옥좌에 앉혀져 있다는 도취감을 지속해라. 황금시대의 옥좌도 이 옥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한결같은 왕관과 툴락을 가졌다는 인식을 변함없이 유지해라. 아주 좋은 자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떠날

수 있겠느냐? 기왕에 뭔가 되려면 고결해져라. “예스”라면 “예스”다! 만일 너희가 죽게 된다면 단박에 죽어라. 이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다. 너희의 목표가 확고하면 아무도 너희를 흔들 수 없다. 목표가 약하다면 변명이 있을 테고 장애를 만드는 상황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결심을 가져라.

밥다다가 아다르 쿠마르들을 만나심.

아버지는 너희를 온갖 유형의 노력에서 이미 해방시켰다. 너희는 신봉의 노력에서 풀려났고 가정을 가진 자로서 삶의 노력에서도 역시 풀려났다. 가정을 가진 자로서의 삶에서 너희는 관리인이 되었으므로 일체의 노력이 끝났다. 이젠 너희가 신봉의 결실을 받았으니 신봉에서의 방향, 즉 노력이 끝났다. 너희들 스스로 신봉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라고 여기느냐? 사실 지식은 신봉의 결실이라고 불리지만, 너희는 신봉의 결실로 지식의 공여자를 이미 찾았다. 너희는 신봉의 결실을 받았으므로 가정에서의 모든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은 끝났다. 너희는 양쪽 모두에서 해방되었다. 굴레의 삶에서 너희는 삶 속에서 해방된 영혼들이 되었다. 누군가 속박에서 풀려나면 그는 행복해하며 춤춘다. 너희들 역시 굴레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영혼들이니 행복해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춤을 춘다. 그저 행복해하며 노래 부르고 춤춰라. 이것은 쉽지 않느냐? 너희가 삶 속에서 해방된 영혼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너희의 굴레는 다 끝났고 너희는 노력하는 데서 해방되었고 사랑을 길러왔다. 그러니 변함없이 가벼운 상태에 머물며 날아다녀라. 너희는 숭배자에서 숭배받을 가치 있게, 불행한 데서 행복하게, 가시에서 꽃으로 변했다. 차이가 참으로 크다. 이젠 철시대의 낡은 산스카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해라. 낡은 세상의 낡은 산스카르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결같이 새로운 삶, 새로운 산스카르를 가진다. 너희는 고귀한 생을 가졌으니 고결한 산스카르가 필요하다. 고결한 산스카르들은 너희와 세상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산스카르로 너희들 스스로를 채웠느냐? 너희 스스로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산스카르 외의, 다른 산스카르를 갖고 있다면 그것들이 이번 생에 장애를 만든다. 그러한즉 이젠 낡은 산스카르 일체를 끝나게 해라. 너희가 영적인 장미라는 의식을 항상 지속해라. “영적인 장미”라 함은 끊임없이 영적인 향기를 퍼뜨리는 자라는 뜻이다. 물질의 장미는 향기를 풍긴다. 그것은 아름다운 자태와 아주 좋은 향기를 갖고 있어서 모든 이를 끌어당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 모두 아버지의 정원에 있는 영적인 장미들이다. 숭배할 때는 언제나 장미를 바친다. 영적인 장미들도 역시 아버지에게 바쳐진다. 야기야의 봉사자가 되는 것도 역시 너희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바친다고 해서 한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서든 살아도 되지만 너희는 슈리마트를 따라야 된다. 그것에 자아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섞이게 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를 그렇게 복 많은 영적 장미라고 여기지 않느냐? 변함없이 너희가 알라의 정원에 있는 영적 장미라는 의식을 유지해라. 이 도취감을 항상 가져라. 도취된 채 아버지의 미덕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신에 대한 이 도취감으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곧 너희의 행운이 될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를 승리하는 판다바들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전진해라. 판다바들의 승리는 매 사이클마다 아주 유명하다. 단 다섯 명뿐이었지만 그들은 승리했다.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아버지가 그들의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속하는 자들도 역시 한결같이 승리한다. 너희가 승리하는 보석이라는 이 의식을 유지해라. 이 측면은 또 엄청난 도취감과 행복도 역시 가져온다. 판다바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는 어떤 기분이 드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이야기라고 느끼느냐? 아르주나의 이름 하나만 명목상으로 언급되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단 다섯 명뿐이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승리했다. 이 인식을 늘 생생하게 가져라. 그것이 마치 어제의 일이었던 듯이 너희의 인식을

아주 뚜렷하게 해라. 너희 모두 집에 앉아있으면서 행운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집에 앉아 있다가 너희는 끝까지 기억될 그렇게 높은 행운을 받았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에 왔으니 너희들의 집에 온 것이다! 너희는 축하하고 먹고 놀았다. 그러다 지치면 너희는 가서 쉰다. 여기서도 역시 너희는 일과 사업을 하고 나서 왔다. 여기에 오자마자 너희는 연꽃이 된다. 너희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 너희는 휴식을 받는다. 아버지를 만나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를 기억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너희의 피로는 없어졌고 너희는 원기가 회복되지 않았느냐? 누군가 여기에 단 두 시간만 와도 원기가 회복될 텐데 이것이 재충전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온다는 것은 재충전된다는 뜻이다. 앗차.

작별 시간에 .

자녀들은 각자 옆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 받는다. 각자에게는 그만의 특별함이 있다. 심지어 꼴찌인 사람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다. 자녀인 너희가 어떠한 너희는 어쨌든 버림의 행운을 달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다고 여긴다. 등수대로이긴 하지만 너희들 모두 사랑과 기억을 받지 않느냐? 밥다다는 가슴속 깊은 데서 우러나 모든 이에게 사랑과 기억을 준다. 그의 가슴속 깊은 데서 우러난 사랑은 모든 이 하나하나에게 똑같다. 너희들 모두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찾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팔이다. 그는 틀림없이 그의 팔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자기 팔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심지어 꼴찌조차 수백만 명 중에서 나온 소수에 속한다. 그러니 너희는 수백만 명 중에서 나온 사랑받는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앗차.

아비약트의 고귀한 말씀

충족감의 보석이 되어 한결같이 충족된 채 머물며 모든 이가 충족되게 만들어라 .

올 한 해 내내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든 충족감으로 협조해주기를, 너희들 스스로도 충족된 상태로 머물고 남들도 충족되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번 시즌의 자아존중은 충족감의 보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자아존중의 자리에 안정해 앉아있어라. 지금 현재 긴장과 괴로움이 많아서 불만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때 충족감의 보석인 너희들 모두 충족감의 빛으로 남들을 충족되게 만들어줘야 한다. 우선 첫째로 너희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지내고 그 다음에 봉사에 충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관계들에 대해 충족감을 느껴라, 오직 그제야 너희가 충족감의 보석이라고 불릴 것이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봉사자가 되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봉사라고 불리는 뭔가에 동요된다면 너희는 남들도 동요시키게 되므로 그런 유형의 봉사는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더 나운데 왜냐하면 봉사의 특별한 미덕은 충족감을 가지는 데 있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되지 않고 너희와 연관된 자들에게도 충족되지 않을 때는 너희도 남들도 그 봉사에서 결실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우선 먼저 너희들 스스로 충족감의 보석이 되고 나서 봉사하는 편이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미묘한 부담감이 늘어나서 날아다니는 단계에 방해가 될 것이다. 한결같이 장애 없이 지내는 것, 끊임없이 장애의 파괴자가 되는 것, 변함없이 충족되어 머물며 남들도 충족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항상 받아야 하는 증명서다. 이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은 곧 가슴의 옥좌에 앉혀진다는 뜻이다. 항상 충족된 채 머물고 남들도 충족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간직해라. 모든 성취를 다 경험하는 영혼은 변함없이 충족된 상태로 머물 것이다. 행복하면 언제나 얼굴에서 그 표시가 보일 것이다. 봉사자들이 그들 스스로와 봉사에 대해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봉사하고 협조하려는 열성과 열의가 생긴다. 그러면 너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충족감은 열성과 열의를 쉽게 불러오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의 특별한 목표는 만족한 상태로 머물고 남들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너희 스스로 모든 성취로 더 가득함을 경험할수록 너희는 더욱 충족된 상태로 머물 것이다. 만일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경우엔 그 결핍으로 인해 너희는 불만족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왕국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는 너희가 노력해야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들은 놀이처럼 되어야 한다. 용기를 가질 때 너희는 적시에 협조를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만족감과 더불어 너희의 높은 단계로 모든 이에게 충족감으로 협조해줘라. 모든 이를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 너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 “나는 과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봉사자의 특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봉사와 너희의 노력에서 변함없이 만족된 상태로 머물 것이고 너희가 도구가 되어준 자들도 역시 충족감을 가질 것이다. 끊임없이 충족되고 남들도 충족시키는 것은 특별함이다.

브라민이란 지각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항상 제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 상태로 지내고 남들도 행복하게 한다. 만일 너희가 남들로 인해 불만족스러워진다면 그 경우에 너희는 합류시대 브라민 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삭티의 형태가 되어 남들의 분위기에서 너희 스스로 멀어진다는 것은 곧 너희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진심에서 우러나 봉사하는 자들은 동시에 기억도 하면서 머문다. 그들은 노력을 덜하면서도 더 크게 충족되는 것을 경험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기억하지 않는 자들, 단지 지식을 기반으로 바바를 기억하고 머리로만 봉사하는 자들은 더 많이 노력해야 하면서도 충족감이 덜하다. 비록 성공한다 해도 그들 마음엔 충족감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그래도...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할 것인 반면 진심에서 우러나 모든 것을 하는 자들은 변함없이 충족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충족감은 만족되었다는 표시다. 그것이 몸의 배고픔이든 영혼의 허기짐이든, 너희가 만일 불만을 가진 영혼이라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너희는 항상 불만스러운 상태로 머물 것이다. 왕가의 영혼들은 적게 먹고도 변함없이 배부른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가득할 때는 충족감이 있다. 너희를 불만스럽게 만드는 봉사는 뭐든 봉사가 아니다. 봉사와 함은 너희들에게 자양분 많은 결실을 주는 봉사라는 뜻이다. 만일 너희가 하는 봉사에 불만이 있다면 그 봉사를 떠나되 너희의 충족감만은 결코 놓치지 마라. 한결같이 한정된 소망들 너머에 머물고 언제나 충만한 상태로 지내라, 그러면 너희가 대등해질 것이다. 합류시대의 특별한 축복은 충족감이다. 이 충족감의 씨앗은 모든 성취를 다 이루는 것이다. 불만족의 씨앗은 물질이든 미묘한 것이든 성취의 부족이다. 브라민인 너희들에 대한 칭송은, “브라민인 너희의 보물창고나 또는 너희의 브라민 생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만이 어째서 있느냐? 축복의 공여자의 보물창고는 흘러 넘치고 있고 그토록 대단한 성취가 있거늘 어찌 불만족이 있는 것이냐? 충족감의 보석인 자들은 마음과 진심으로 모든 이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드라마에 대해서 늘 만족한다. 그들의 마음에서도 그들의 몸에서도 언제나 행복의 물결이 보일 것이다. 비록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들과 카르마의 잔고를 정리해야 할 영혼들이 겨루려고 그들 앞에 오더라도, 몸을 통한 카르마의 고통이 그들 앞에 오더라도, 충족감으로 인해 한정된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그런 영혼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빛나는 별들로 보일 것이다. 충족된 영혼들은 항상 모든 이를 이타적이고 아무 잘못 없이 순진하게 (비난받을 일 없이) 경험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일로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행운의 공여자, 드라마, 다른 어떤 사람도 탓하지 않고, “내 몸은 어차피 그래” 라고 생각하며 몸에 대한 카르마의 부채를 탓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이타적이고 순진한 태도와 시선을 가질 것이다. 합류시대의 특별함은 충족감이다. 이것은 브라민 생의 특별한 성취다. 충족감과 행복이 없다면 브라민이 되는 데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한 상태로 머물고 모든 이를 충족되게 만들어라. 이것이 참된 봉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Blessing: 카르마의 기본원리를 아는 자가 된 다음에, 신성한 지각의 축복으로 아무런 오점도

없게 너희의 기록부를 유지해라.

너희가 브라민으로 태어나자마자 자녀인 너희들 각자 신성한 지각을 축복으로 받았다. 어떤 문제나 친구의 영향도 없고, 너희들의 신성한 지각에 너희 마음의 지시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너희들의 기록부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신성한 지각이 적시에 작용하지 못한다면 그 경우엔 기록부에 자국이 생기고 이런 이유로 카르마의 기본원리는 아주 깊다고 일컬어진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반면 카르마의 기본원리를 아는 자인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위를 후회할 일이 전혀 없다. 너희는 “와 나의 고귀한 카르마!”라 할 것이다.

Slogan: 오직 순수성이 깊은 다르나가 있어야만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